

‘지속가능한 해남’ 본격 추진...4대 전략 17개 목표 수립

각계 30명 위원 참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첫 정기회의

해남군이 제1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열고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좋은 해남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지난 13일 경제, 사회, 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2025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22년 12월 제정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9

월 명현관 군수를 포함해 군의원,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발족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2025-2029 작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해남군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계획은 특성과 실정에 맞춘 153개 정책 과제와 62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포함해 균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했다.

해남군은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좋은 해남' 비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환경 보호 ▲행복하고 건강한 포용사회 조성 ▲신성장 경제와 좋은일자리 창출 ▲포용과 소통의 민관협력 강화 등 4개 전략과 이에 따른 17개 목표를 세웠다.

향후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지표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과 캠페인 송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지난 13일 2025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첫 정기회의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장학금 기탁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연초부터 장학금 기탁 행렬

개인·단체 등 2500만원 전달

진도군은 올들어 군민과 단체 등이 2500여만원의 장학금을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장학금 기탁 군민과 단체는 ▲선일씨푸드 500만원 ▲에이치엠씨푸드 500만원 ▲진도보석영여조합법인 500만원 ▲신광씨푸드 300만원 ▲김천실 500만원 ▲로얄사우나 대표 박동화 100만원 ▲세광기업 200만원 ▲홍의영 100만원 ▲조은컴퓨터 대표 이일교 100만원 ▲지산

면 용진회 1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사회봉사단체인 지산면 용진회는 단체의 도움을 받았던 한 주민이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해 온 100만원을 장학회에 기탁, 의미를 더했다.

한편 2008년에 설립된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현재 장학기금 250억원을 조성해 장학금 45억원, 교육경비 55억원, 명문고 18억원, 학교시설 지원사업 19억원 등 총 137억원을 지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군, 출생부터 18세까지 1억2000만원 지원

월 20만원 출생기본수당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총력전

무안군은 무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2000여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안군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신생아 양육비(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2000만원)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한다. 또 전남도와 협력해 2024년 출생아부터 1~18세

에 월 20만원씩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을 올해 신설해 지급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0-8세 월 10만원 ▲가정 양육수당 2-7세 월 10만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영유아 보육료 0세 월 54만원, 1세 월 47만원, 2세 월 39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3-5세 어린이집에 월 28만원 등을 지원한다.

성장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급식(무상급식, 학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우유 급식) 지원과 초·중·고 입학축하금 10만원과 인터넷 교육방송, 교복 구입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할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영아돌봄수당 신설 등 양육지원 강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출산을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과감한 시각으로 다각적인 육아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군의 최우선 과제"라며 "출생부터 양육, 돌봄, 교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 분양

산업·공공용지 5만2463.8㎡

목포시가 대양동 일원에 조성한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잔여부지를 분양한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이번 분양은 산업시설용지 3필지, 지원시설용지 6필지, 공공시설용지 1필지 총 10필지 5만2463.8㎡ 규모다. 분양가격은 산업시설용지 ㎡당 25만9060원이며,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이상 낙찰금액으로 한다.

입주대상 업종은 산업시설용지는 비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며, 지원시설용지는 제1종 및 제2종 그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이다.

산업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분양신청은 목포시청 전략산업과에서 방문 접수 가능하며, 지원시설용지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

자산 처분시스템)를 통해 3월 7일부터 10일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는 목포 시내 10분 거리의 도심형 산업단지로서 서해안고속도로, KTX고속철도, 목포신항, 무안국제공항 등 사통팔달 교통과 물류 최적지로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2016년 5월 준공돼, 현재 분양률 90%를 기록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가 2024년 6월에 해상 풍력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기업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목포 대양산단 분양에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군 주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34개로 확대

골절·화상 수술비까지 보장

완도군은 '주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34개로 넓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위해 생활 안정을 꾀하는 제도다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외국인인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 재난 사망·후유 장애·진단 위료금 ▲의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망·상해 후유 장애 ▲24시간 상해 사망·후유 장애 ▲골절·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살해준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 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 장애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애 등 총 34개 항목이다.

지난해 29개 항목에서 올해 골절 수술비와 화상 수술비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주민안전보험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마을 순회 방문과 함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며 "군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영암군 3~5호 창업자 모집

올케어 서비스...성공 안착 지원

영암군이 빈 상가를 활용해 음식점을 개업할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영암군 3명을 모집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먹거리 콘텐츠 육성 종합계획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는 지역 먹거리 콘텐츠 다양성 확보, 지역상권 활성화, 지속가능발전 등의 취지인 상생투자사업이다.

선정되면 업소당 4500만원까지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 사업 계획에서 사후관리까지 뒷받침하는 부트캠프, 전문세프 1:1 컨설팅, 마케팅·세무·회계 전문가 자문 등 올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문세프 1:1 컨설팅에는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형 셰프가 함께해 조리 기본, 영업장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한다. 천 셰프는 20여 년 정화대 총괄 조리팀장을 지낸 후 현재 중식당 '천상현의 천상', 한식당 '상촌재'를 운영하고 있다.

차별화된 먹거리로 맛 인프라를 풍부하게 할 창



영암군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1호점 개소. <영암군 제공>

업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외식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와 외식학과 졸업자는 우선 지원대상이다. 희망지는 3월 19일까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우승희 군수는 "지나해 개업한 1호점 '장산리푸

줏간', 2호점 '촌스토랑'이 성업 중이다"며 "올해에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올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견고한 시스템으로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해빙기 대비 안전의식 향상 교육

무재해 목표 안전관리 만전 당부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가 지난 17일 '정기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 <사진>

안전보건협의체는 중대재해처벌법 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라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회의로서, 협의체 결성 후 매월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도급인 대표인 범필재 목포무안신안지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및 수급인 대표와 대리인 총 23명이 참여했다.

이날 해빙기 대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핵심가치를 공유했다.

범필재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 지사장은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 후 현장 주변 정리 등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올 한해 무재해

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해남군, 주민 글로벌 역량 강화 화상영어 지원

250명 주 2회 18주간 진행

해남군이 주민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화상영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3년째인 화상영어 지원사업은 영어 회화 능력을 키우고 글로벌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로 주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연간 200명의 참여자를 상반기에만 250명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해남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화상영어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통해 참여자

와 원어민이 1대1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준별 맞춤 과정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과정은 3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18주간 주 2회 운영하며, 1회에 30분간 회화를 진행한다.

해남에 주소를 둔 7세 이상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6일까지 해남군 교육재단에 방문이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화상영어 지원사업은 언어장벽을 넘어 글로벌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